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간다

강철 생산의 전 초 선을 지켜

황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길 이 아닐까 하는 용광로 앞에서 쇠물을 찌는 용해공들이 생각 한다.

그 미더운 용해공들이 자랑하 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강철생산의 전 초 선을 지켜선 높은 공지와 영예 감을 안고 맑은 입에 지혜와 열 정을 다 바치는 산소분리기 1 직장인과 종업원들이다.

강애하는 최고명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로동제국의 대는 바뀌어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충실성의 전통, 밀실단결의 덕치는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많은 일리가 그러하지만 산소분리기 1 직장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발자취 가 들어있습니다.

강애하는 최고명도자집정께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 령회의에서 명진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공지높이 선언하시오! 당 의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 신 강력한 소식을 받아안은 남 자적이었다.

산소분리기 1 직장 종업원들 은 생산현장에 모여 신심에 넘 쳐 이야기꽃을 피웠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하여 로동에 광광 보내줍시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 1 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축승니다. 산소생산량이 강철생산수준이 아닙니까.》

열화같은 심정들을 토로하는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직장장 명심전문의 눈가에 새로운 열 기의 반짝이었다.

그는 오랜 황철로동자의 아들 이다. 그의 아버지는 공부수리직 장에서 수십년간 일한 성실한 로 동자였다. 철의 도시에서 지낸 그는 어릴때부터 명철남, 유식남이 따로 없이 일러나가는 아버 지가 이상하여 웃었다. 아버진 쇠물류는 용해공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가고.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도 황철로동제국이 다. 쇠물을 끓이는 용광로물에는 수리공인 이 아버지의 손질이 항상 필요하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소분리기 직장(당시) 운전공이 된 그는 직장의 오랜 로동자들에게서 열 을 배우며 아버지의 그 말을 되 세웠다. 황철로동제국은 어느 직장에서 무슨일을 하든 생각과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 강 철생산선에 모르는 사람들이었 던 것이다.

더구나 산소분리기직장은 련 합기업소의 강철생산에서 중요 한 위치에 있었다. 용광로물 들 리라고 해도 그렇고 연속조괴와 각강질단 등 황철산을 높이는 데

일군들과 종업원들

서도 산소는 없어서는 안될 생 명선이었던 것이다.

작업현장에 눈부신 쇠물류는 쏟아지지 않아도 강철생산의 생명선을 지켜준다는 공지와 자 부심이 직장일군들과 종업원들 의 심장을 언제나 뜨겁게 불레 워주었다.

하기에 직장의 종업원들은 신 입로동자들이 공기압축기며 산 소분리기, 산소압축기 등이 주 려니 높은 현장을 처음 돌아보 며 어느 실마가 제일 중요한가 고 물을 때마다 어느것 하나 소 물히 해서는 안된다고 단단히 으름을 내곤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 령회의 결정관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은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어느날 수리 1 작업반장은 공기 압축기의 한 부속품이 낫게 된 것 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지난 시 기에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철에 오실 때마다 우리 로동자들이 강철생산의 주인이라고 늘 고치 하시었는데 이 조그마한것에 되 살리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황 철의 전파자가 주인공이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부속품수리에 달려들은 그는 팔팔대 새것 못 지 않게 한결해놓았다.

어느 한 작업반장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집에 더

덕천탄광기제공장 소재직장에서

한밤중에 열린 당원협의회

덕천탄광기제공장은 덕천지구의 탄원들에서 열심히 일하는 탄 광실비부족자들을 생 산보장하고있는 단위 이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이곳 로동제국의 앞장에는 소재직장 당원들이 서 있었다.

위대한 명도자 집정일부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 었다.

《당원은 언제나 당 원이라는 자질을 가지 고 당원의 영예를 빛내 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해야 합니다.》

공기식재기를 생산 하기 위한 전투로운 공 장이 부각부각 끓어오르 고있던 지난 3월 어느 날 깊은 밤이었다.

종업원들이 피곤한데 오온지도 귀나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현 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 들이 있었다.

주부들에게 기공생긴 원인을 찾기 위해 직장장 김명철동무와 주강책임장장을 비롯 한 직장의 당원들이 열띤 토론 을 벌이고있었다.

본사기자 허 명 수

면 열백백이라든 웃으며 세우 려고.

사람들은 그들을 미더운 눈길 로 바라보았다.

늘 대로의 앞장에서 달리는 당원들이었다.

연세인가 이런 일이 있었다. 갑자기 주부에 필요한 부원료인 파슬이 부족되었다. 공정속도에 비례 미처 재제가 따라서 못 했었던 것이다.

《동무들, 여기 부원료가 있소.》

한 당원이 밤을 흘리며 파슬 을 들고 나타났다. 그를 마주하 는 종업원들의 눈과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위파라 많은 당원 들도 여러곳을 다니며 애써 마 련한 파슬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업원 들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남들 이 할 때에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밤을 흘리고 어려운 일은 출 선 도맡아나서는 당원처럼 살 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선봉투사들의 뒤를 이어 모두 가 펼쳐나갔다. 그것은 그대로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났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원의 본 분을 다해가는 이런 당원들이 있어 우리 당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은 땅이 갈겨진 혁명초소에서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신 철

고향땅에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

수동구 수동동 녀맹원들

지난 8월 어느날 수동구의 제 육년전선에서는 집결제 일손 을 다그치는 녀인들의 땅애 넘 진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메아 리쳤다. 불꽃이 핑기는 살날들, 연해연방 휘황속에 내려쌓이는 콩크리트콘크리트...

물결타는듯도 무색케 할 그 일손속에 한바탕의 찬바람이 되어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는 수 동동 녀맹원들의 헌신이 깃들여 있었다.

강애하는 최고명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녀성동맹이 강화되고 녀 맹원들과 녀성들이 힘차게 떨 쳐나갈 때 우리 혁명위업은 더 속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 입니다.》

얼마전 아침 수동동의 길가에서 는 두 녀인사이에서 성경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동무야 영애도 녀 인의 안색이 어둡다고 하며 동 우는 미미한 표정으로 맹원들의 부 분위원장 허옥순동무에게 취재 서고하자고 수동당의 녀인이라고 고, 그래서 슬픈김현영에 빠질 수 없다고 절실히 이야기하는 영애의 안색을 바라보며 사 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새 길을 밟을 때는 도래 도 새주고 때없이 찾아와 생활

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 라 진정용 기용여주는 집애에 대한 고마움을 주고 그렇게 스스로 출근김현영에 달려나온 그 이었다.

지난해 가을 수동구의 어느 날 살림집건설에서 그날 계획 했던 작업량을 끝마친 녀인들이 걸음을 옮긴 곳은 한 녀맹원의 집이었다.

비밀까지 건설장에서 일장 서 달려낸 그가 뜻밖의 라카상 을 입고 누워있었던 것이다. 환 자를 간호도 해주고 하루작업에 서 있었던 일도 말해주며 이야 기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도 시대를 방황해 했다. 그 후 녀인들의 그 인과는 계속 이어지었다.

영애의 녀인들과 진정로맹들의 가정은 물론 이웃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는것 은 부분위원장 허옥순동무와 녀 맹원들의 평범한 생활로 되었고. 누가 물어주면은 마음너 인들이 달려가고 어느 가정에 서고마한 애로가 생겨도 서로가 마음을 합쳐가는 그들이었다.

녀인들의 뜨거운 열구의 정 에 받들려 올베에도 진정로맹 들은 로동당의 은력으로 환공 도 새겨 씌어가는 도래속에 생 목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고

고귀한 유흔 가슴에 안고

선천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승길이 새기고 군산림경영소일 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 없이 바쳐가고있다.

산세와 토양의 특성에 맞게 나무심기와 그 비배관리를 철저 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잘한 대로 면제를 비롯하여 인 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카드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흔을 가

품어낸 질풍은 거품을 났고 어 튼이면 피아람속에서 김메기를 알신있게 하였다. 봄과 가을이 면 산물잡기를 하느라 산에서 삽다실이 하였고 매일과 같이 산물을 오르내리면서 숨이 찰 나부름과 내력을 가능하게 하느라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간 돌은 늘 있었으며 신심은 한말이 멀다하게 새로 바꾸어신 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나무 수시정보의 모체야양과 잘 사시야양장을 꾸민데 이어 이른

물어낸 질풍은 거품을 났고 어 튼이면 피아람속에서 김메기를 알신있게 하였다. 봄과 가을이 면 산물잡기를 하느라 산에서 삽다실이 하였고 매일과 같이 산물을 오르내리면서 숨이 찰 나부름과 내력을 가능하게 하느라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간 돌은 늘 있었으며 신심은 한말이 멀다하게 새로 바꾸어신 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나무 수시정보의 모체야양과 잘 사시야양장을 꾸민데 이어 이른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분류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내었다. -평양자동차기공장에서- 김 광 립 작

창조의 열정속에 새겨가는 값높은 자욱

자강도에 가면 어디서나 실린 가, 실력가치의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볼수 있다. 강제의 장재공장 지대인 안원동무도 그 러한 일군이다. 그는 지난 몇해 동안 일정을 어느모로 보나 손이 많은 단위로 전념시키고 강제시를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과학기술자사상을 볼수 있다. 그는 공적으로 불려오 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실적 을 올리는 우리 시대 일군들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위대한 명도자 집정일부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누가 보지않던 달이 멀거 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부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 는 사람들입니다.》

다섯해전 겨울 어느날이었다. 강제의 장재공장 지대인 안원 동 시의 한 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 을 맡아보던 안원동무가 임명되 었다는 소식이 사람들속에서 파 문을 일으켰다. 공장이 맑고있 는 임무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이 외재에서 크지 않은 이 공장은 사실 은 도를 대성한다고 말할수 있 었다. 안원동무도 이께가 무거 했다.

평범한 로동자의 지식을 집일성총합대학을 졸업한 어떤 연구사도, 당원으로 키워주 었으며 오늘은 중요한 공장 지 대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였는 가 하는 그 생각들이었다.

당에서 믿고 맡겨준 단위를

장계의 외재 공장 지배인 안원동무

시절부터 품어온 줄이었다. 그는 학과학문의 여가시간마다 피라 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저는 고향땅과 뚝배기인 인 생의 정성을 한눈에 생각해본적 이 없습니다. 내 고향의 자랑인 장자리의 불야경을 언제 보든 손색이 없는 《명화》로 만들어 내는것이 저의 집념입니다.》

박사학위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대학에 남아 연구사업을 계 속할것을 권고하는 대학의 한 일군에게 안원동무가 한 이 말 은 곧 그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자기 지방에서 외재의 원로 를 찾기 위해 그가 두달 남짓한 기간에 걸친 것은 수천리나 되 었다. 할말에도 여러 겹의 신 밥을 갈아낸 정도로 힘찬 산길 도 많았고 손과 무릎이 마저된 시도 기어오 올라야 하는 아슬 아슬한 길에도 있었다.

몇달만에 자강도의 어느 한 산골에서 그처럼 찾아온 방문을 받들었을 때 그의 기쁨은 얼마 나 컸는가.

그의 고심어린 노력을 두고 미러를 거두어본 사람들은 찬 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신물배를 더욱 조이며 또다시 탐구의 면전에 나섰다. 공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해서는 생각만큼대로 반드시 지 방의 원로로 해결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당시의 성과는 보다 높은 목표로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는 또다시

과학연구기관으로 달려갔다. 수천만 작업복에 무거운 시료 배낭을 등에 지고 할말이 많다 하게 찾아오곤 하는 사람, 그가 수백의 펄이진 장재제의 외재에 과학자이러는것을 알았을 때 공학자, 연구사들은 그의 비 상한 열정과 탐구심일에 머리물 속이었다.

공장을 임파세우기 위한 초형 집에서 겪은 고생들이 너무도 많았었다. 잠시 그를 로가되어 부 분은 안원동무는 석회로를 지하 에 다시 건설하는것이 어떻겠 는가 하는 의문을 내비쳤다.

지하시설이 세워지는 동안 일군들에게 안원동무는 지하에 로를 건설하면 원료를 퍼내기도 좋고 보온도 잘되어 좋을것이라 고 하면서 무거운 석회보다 가벼운 생석회를 활용하려는것이 더 실리적이 아니겠는가고 말하였다.

은 공장이 펼쳐나 건설된 지 하석회로에서 기쁨을 금치 못 하던 그때 일을 물어보아도 종 업원들은 분명 회화를 전공한 지배인인데 열공과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어느 분야에서 는 막히는것이 없다고 자랑담아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증산하고 최대한 결 약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이다. 안원동무는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인 계 산에 기초하여 간직해 내려갔다. 외재장공장은 그 후속으로 각종 수급요소들과 조종장치를 비롯하여 최대한의 실력을

공장의 이름이 빛나고 종업원들 의 애착심이 커가는 것이다.

실력은 헌신이 아니다. 안원 동무가 지배인사업을 갖 시작하 였을 때 제임원제 찾아가면 번식 을 위한 사람이 평범한 공장을 보급원이고 수년새칠 출몰한 때 일이다싶이 찾았은 사람도 그 보급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 해주는가.

지난 7시엔 안원동무는 메의 없이 국가망과 원결된 플루머이 데 마주앉았다. 그 시간이 그에 는 이렇지 않은 학습시간이었 다. 지대인사업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자제로 하는 학 습과제를 매일 수행하고 있었 으며 여러 대학, 전문연구기관 에 찾아가 배우기도 하였다.

안원동무의 높은 열정은 이렇 듯 그의 비장한 사색과 탐구, 열 정의 산물이었다. 이런 피라는 노력, 사색과 탐구의 열정이 있어 그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실 령가로 필수 있었다.

몇달전 3대혁명정시판에서 는 건설전선부,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환속있는 과학자, 연구사들의 참가에 전구적인 과학기술축전에 출품된 새로운 건 물비다마감시공방법에 대한 심 의가 진행되었다.

심의를 제기된 시공방법의 혁신적인 점과 경제적인 실용성을 그리하였지만 유망하게 번문을 하는 사람이 지대인이라는 사실 이 심의를 통해 더욱 밝혀졌다. 그가 바로 안원동무였다.

하지만 그들은 번문장에 나선

그 일군이 지난 기간 수많은 과학기술적분체들을 해결하였다 는 사실은 미치 않을 없었다.

발명중, 새 기술종종, 장 의고안중을 비롯하여 안원동무 가 맡은 수십건의 중생들과 그 의 기발한 착상과 정력적인 방 조로 도입된 수십건의 기술혁 신안.

이것을 통해서도 그의 창조적 세계, 실력의 높이를 느낄수 있다.

오늘 공장의 기술종종은 그 큰 하며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기술 가능성준도 높다.

헤마다 진행되는 과학기술축 전에서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공장의 자랑도 되었다.

이 공장의 두드려 제품을 생산 하는 공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연구소인지 기관지 어떨 다고 하는 말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길고 안원동무 혼자서 깊은 헌신의 길이 아니었다. 그의 삶 의 지향을 키워준 이거가 미릴 어주고 고무해준 도와 그의 책 의일군들, 이렇고 힘을 때가 많 았던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합쳐준 종업원들.

바로 그 뜨거운 마음들에 떠 달받은 안원동무는 한계 단위를 책임진 실력있는 일군으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할수 있었다.

실력가치의 일군, 우리 일군 들이 이런 초심으로 불려올 때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이 빛나 는 현실로 펼쳐지고 우리 시 사회주의는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 아니냐.

자강당의 크지 않은 공장 지 대의 삶이 그랬을 따지급 길 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경 일

